

## 우울에 대한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의 검증

이 민 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특성이 이와 일치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취약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499명이 한국판 PSI-II (Korean Version of Personal Style Inventory-II), 생활사건질문지 및 HDS가 포함된 질문지에 응답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 유형이 이와 일치하는 대인관계 및 성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의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치성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자율지향성 차원의 경우, 성취사건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했지만 대인관계 사건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언을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지향성 차원의 경우는 예언한 바와 같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 이론, 임상적 함의 및 향후 연구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많은 이론가들(e.g., Beck,1983; Bemporad,1971; Blatt,1974)이 우울증의 발생과 유지 과정에 두 가지의 성격 양식이 관여함을 제안해 왔다. 그 중 하나는 타인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독립과 성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Blatt (1974)는 성장 초기의 상실 때문에 유발되는 의존성 우울증과 성장 후기의 외적인

부정적 평가를 수용하면서 발달되는 내사된 또는 자기 비판적 우울증 (self-criticism depression)을 구분했다. Blatt (1974)는 개인이 성숙한 자기표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 대신 자기-가치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인관계를 추구하면 "의존적" 성격이 발달한다고 제안했다.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버림받은 경험을 했거나 또는 자기자신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의존적 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민 규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번지 442-749 / FAX : 0331-219-2195 / E-mail : lmk@madang.ajou.ac.kr

울증이 된다. 이 유형의 우울증은 무력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호와 사랑에 대한 소망 등으로 특징화된다.

“자기-비판적인” 성격은 관계 내에서 자기표상을 적절하게 발달시키지 못하고 개성, 능력, 성취를 통해 자기-가치감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Blatt (1974)는 자기-비판적인 사람이 그의 내적 기준이나 타인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사적 우울증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강한 열등감, 죄책감 및 무가치감이 이 우울증 유형의 특징이다(Blatt, D'afflitti, & Quinlan, 1976).

인지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Beck (1983)도, Blatt (1974)와 유사하게 성격특질과 관련해서 우울증이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Beck (1967)과 Beck, Rush, Shaw 및 Emery(1979)는 우울 삽화를 유발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편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지적 편파는 부적절한 자기비난, 자기비판, 왜곡된 자아상 및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기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Beck, Rush, Epstein, Harrison 및 Emery (1983)는 이러한 인지적 편파를 검토하면서 편파들의 특성에 기여하고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개인차 변인을 제안했다.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라는 두 가지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 차원이 이턴 맥락에서 소개되었다(Beck, 1983).

그가 제안한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은 Blatt(1974)의 의존적 성격과 자기-비판적 성격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Beck에 의하면, “사회지향성” 성격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교환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타인의 배려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이 우울해지면 그들이 보이는 임상적 특징은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지배적이며 전통적으로 반응성 우울증과 관련될 수 있는 증상들을 주로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더 고독해하고 불안 증상이 심하며, 잘 울지만, 도움을 잘 청하고, 치료에 대한 절망감을 적게 느끼고, 기분의 변화가 심하지

만, 치료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반면 “자율성” 우울증은 Blatt (1974)가 제안한 내사적 우울증과 유사하게 성취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된다고 가정된다. 이 유형의 우울증은 패배감, 무망감, 치료에 대한 비판적 생각, 자기-비난, 실패감, 흥미나 즐거움에 대한 깊은 상실감, 비반응적이고 지속적인 우울감을 포함하고 있다.

우울증과 관련된 성격유형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간에는 명백한 공통점들이 있다. 그중의 하나는 우울증이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것은 성격의 차이에 근거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 점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성격의 한 가지 차원이 중요한 타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몰입하는 것과 관련된 반면, 다른 차원은 개인적인 성취나 자율성에 과도하게 몰입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가지 접근 모두 성격특성과 특정 생활사건이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유지시킬 것이라는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모델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에 따르면, 특정한 성격 양식이 지배적인 사람은 그 양식의 내용과 일치하는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이나 실연 및 갈등 등 대인관계상의 사건들은 사회지향적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취약성을 활성화시키지만 부정적인 성취, 또는 자율성과 관련된 사건 예컨대, 일, 경제적 또는 법적 문제, 개인적 건강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은 이들의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활성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반면,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들은 자율지향성 성격의 소유자에게 취약성을 활성화시키지만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이나 대인관계의 갈등 및 상실 상황에서 자율지향적 성격의 소유자들이 우울증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제안한다.

Blatt (1974) 및 Beck등(1983)이 제안한 성격-사건 일치성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많은 연구들에서 매우 혼란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Hammen, Marks, Mayol 및 deMayo (1985)는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접을 사용해서 의존적 성격과 자기 비판적 성격을 분류한 다음 일치성 가설을 검증했다. 연구 결과, 의존적 집단의 경우, 우울 정도는 성격과 불일치하는 부정적 성취사건에 비해 성격과 일치하는 대인관계사건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존적 집단에 비해 관계의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자기비판 집단의 경우도 성격과 일치하는 성취사건과 우울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성격-사건 일치성 가설을 지지했다. Segal, Shaw, Vella 및 Katz (1992)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회복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치성 가설을 검증했다. 환자들의 절반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우울증의 재발을 보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와 자율지향성-사회지향성 점수간의 상호작용을 보여 일치성 가설을 지지했다. 그러나, 생활사건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했을 때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연구들이 일치성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했으나 표본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취약성 요인 각각을 별도로 적절하게 검증하지는 못했다(Robins, Hayes, Block, Kramer, & Villena, 1995). 또 많은 연구자들 (Clark, Beck, & Brown, 1992; Hammen, Ellicott, & Gitlin, 1989)이 성격-사건 일치성 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취약성 요인 중의 하나만을 지지하는 증거를 보고했다. 대인관계적 및 성취관련 부정적 사건 두 가지 모두가 두 가지의 성격유형과 상호작용해서 성격-사건 상호작용의 특정성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Kutcher & Blaney, 1994; Robins & Block, 1988; Zuroff & Mongrain, 1987). 우울에 대한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을 검증하려고 시도된 연구 결과들이 표집 대상 (임상 표집 대 비임상 표집)이나 연구설계 (종단적 연구 대 횡단적 연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이론이 일관성있게 지지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성격양식의 측정도구와 관련된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일관성없는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한 것에 부분적으로 기

인할 수 있다. Robins, Ladd, Welkowitz, Blaney, Diaz 및 Kutcher(1994)는 기존의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척도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PSI-II라고 하는 새로운 성격양식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일치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의 비밀관적인 결과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측정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 일부의 연구들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측정치로 사건의 빈도를 사용했으며 또 다른 연구들은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관련된 성격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성격양식 측정도구를 보완한 후 가장 최근에 개발된 PSI-II를 우리나라 말로 번안하고 그 요인구조를 확인한 한국판 PSI-II (이민규, 1999)로 평가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성격양식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빈도와 중요성을 조합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의 지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방 법

### 대 상

본 연구에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567명이 참여했다. 이 중에서 질문지에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는 68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499명의 자료였다. 그 중에서 남학생은 291명이었으며 여학생은 208명이었고, 이들의 연령범위는 18세에서 26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1.13세 (표준편차=2.06)였다.

### 도 구

연구참여자들은 척도들이 포함된 질문지에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였다. 질문지에 포함된 척도들은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측정하는 한국판 PSI-II

(Korean Version of Personal Style Inventory-II; 이민규, 1999)와 생활사건 질문지 (이민규, 1999) 및 개인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는 HDS(Hopelessness Depression Scale; 이영호, 1993)였다.

**PSI-II: 사회지향성과 자율성 성격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PSI 개정판 (Modified version of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을 번안해서 요인구조를 확인한 한국판 PSI-II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원래 Robins 등 (1994)이 개발한 것으로 사회성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 공히 24개씩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에는 사회지향성 요인 19개 문항과 자율지향성 문항 18개 총 37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부터 6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두 가지 척도 모두 높은 내적 합치도 (사회지향성:  $\alpha = .83$ , 자율지향성:  $\alpha = .82$ )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사회지향성:  $r = .77$ , 자율지향성:  $r = .80$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가지 척도 간의 상호 상관은 낮은 편이며 ( $r = .19$ ), 우울과는 사회지향성,  $r = .25$ , 자율지향성  $r = .19$ 로 상관되어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비교적 독립적이며 우울 증상 정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우울의 취약성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사건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사건 질문지는 Sarason, Johnson, & Siegel (1978)이 제작한 LES (the Life Experience Survey)를 참조해서 제작되었다. 연구자가 5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LES문항들을 검토해서 그 중 대인관계적인 문항과 성취관련 문항을 선정해서 한국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문항은 새롭게 추가했다. 두 명의 임상심리학자가 각각의 문항을 대인관계 관련문항인지, 아니면 성취관련 문항인지를 평가한 다음, 평정자간 이견이 있는 문항은 평정자들 간에 일치가 되도록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대인관계 관련 사건 10개 문항과 성취관련 사건 10개 문항을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각각의 문

항에 포함된 생활사건이 지난 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4점 척도 (전혀 없음=0 ~ 매우 자주=3) 상에서 평정했다. 그런 다음 그 사건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4점 척도 (중요하지 않음=0 ~ 매우 중요=3) 상에 평정했다. 대인관계 및 성취사건의 스트레스 점수는 빈도와 중요성을 곱해서 계산했다.

**우울증 척도:**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DS (Hopelessness Depression Scale)를 사용했다. HDS는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무망감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호 (1993)가 제작한 것이다. 이 질문지는 우울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의 문항 중에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증상 및 자존심 저하와 관련된 문항들(각 5문항씩 총 20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제작되었다. 일반인들에게 실시한 결과,  $\alpha$  계수 = .90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 절 차

남녀 대학생들에게 한국판 PSI-II와 생활사건질문지 및 우울증 척도(HDS)가 포함된 질문지를 심리학 관련 강의시간에 배포하고 응답하도록 했다. 질문지는 익명으로 작성하게 했으며 질문지를 작성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참여 점수를 부여했고 질문지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질문지의 내용과 연구목적 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응답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결 과

### 측정치들에 대한 성차의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된 측정치들 (PSI-II의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 생활사건 질문지의 대인관계관련 및 성취관련 사건의 빈도 및 중요성, 우울

표 1. 성별 측정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단일 변량분석 결과

측정치	남	여	F	p
사회지향성	75.32(10.19)	76.94(10.49)	3.00	.084
자율지향성	67.38(9.81)	68.96(10.10)	3.06	.081
대인관계 사건(빈도)	7.59(4.12)	8.49(3.96)	5.91	.015
성취관련 사건(빈도)	14.95(5.17)	15.91(5.42)	4.04	.045
대인관계 사건(중요성)	15.09(6.17)	14.93(6.37)	0.77	.781
성취관련 사건(중요성)	20.00(5.41)	20.91(5.54)	3.32	.069
HDS(우울)	34.08(9.43)	36.19(9.81)	5.86	.016

측정치)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다변량 분석 결과, 전반적인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Wilks'  $\lambda=0.972$ ,  $F(7,491)=2.03$ ,  $p < .05$ . 측정치별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대인관계 관련 사건의 빈도와 성취관련 사건의 빈도를 높게 평정했으며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성 변인의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의 검증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이 이에 상응하는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해서 우울 수준을 예언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격 양식 변인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과 부정적 생활사건 (일치와 불일치)의 조합인 네 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별도의 회귀방정식으로 평가했다. 종속 측정치는 HDS로 측정된 우울 점수였으며 성 변인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회귀방정식 평가과정에서 성 변인이 첫 번째로 투입되

었다. 성 변인 다음으로 성격양식 변인과 생활스트레스 변인 및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변인<sup>1)</sup>을 차례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격 양식 변인의 주 효과는 성 변인에 이 변인을 추가했을 때 증가된  $R^2$ 의 값을 평가해서, 그리고 생활 스트레스의 주 효과는 성 변인과 성격양식 변인의 주 효과가 포함된 모델에 생활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했을 때 관찰된  $R^2$  증가치를 평가해서 검증했다.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성 변인 및 성격 양식과 생활스트레스, 세 가지 변인 모두가 포함된 모델에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했을 때 관찰되는 두 모델간의  $R^2$  차이 값으로 검증했다. 각각의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양식과 이에 상응하는 유형의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가 상호작용해서 우울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표 2와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 변인과 성격양식 변인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 및 생활사건 스트레스 변인 (부정적 대인관계 사건 및 부정적 성취관련 사건)의 주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우울 수준이 높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지향성이나 자율지향성 성격, 그리고 부정적 대인관계 사건과 성취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는 모두 우울

1)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성격양식과 생활스트레스 변인간의 상호작용 항목은 상호작용효과를 평가할 때 상호작용에 포함된 특정변인에 의해 상호작용효과가 과도하게 영향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iken과 West (1983)가 제안한 중심화 기법 (centering technique)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상호작용효과의 값은 두 변인의 개인별 점수와 표집 대상 전체의 평균치와의 차이 값을 곱해서 계산된 것이다. (개인별 생활양식 점수-생활양식 점수의 평균) X (개인별 생활스트레스 점수-생활스트레스 점수의 평균).

표 2. 사회지향성, 생활사건, 및 성격-사건 상호작용 효과의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 인	$R^2$	$R^2$ 증가치	$df$	$F$	$p$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일치〉						
1	성별	.012	.012	1,497	5.86	.016
2	사회지향성	.130	.130	1,496	71.89	.000
3	대인관계사건	.266	.135	1,495	89.55	.000
4	사회지향성 X 대인관계사건	.267	.001	1,494	.75	.384
〈성취 관련 스트레스: 불일치〉						
1	성별	.012	.012	1,497	5.86	.016
2	사회지향성	.137	.125	1,496	71.89	.000
3	성취관련사건	.290	.153	1,495	106.67	.000
4	사회지향성 X 성취사건	.309	.019	1,494	13.38	.000

표 3. 자율지향성, 생활사건, 및 성격-사건 상호작용 효과의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 인	$R^2$	$R^2$ 증가치	$df$	$F$	$p$
〈성취 관련 스트레스: 일치〉						
1	성별	.012	.012	1,497	5.86	.016
2	자율지향성	.068	.057	1,496	30.10	.000
3	성취관련사건	.258	.190	1,495	126.68	.000
4	자율지향성 X 성취관련사건	.266	.008	1,494	5.33	.021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불일치〉						
1	성별	.012	.012	1,497	5.86	.016
2	자율지향성	.068	.057	1,496	30.10	.000
3	대인관계사건	.219	.151	1,495	95.92	.000
4	자율지향성 X 대인관계사건	.219	.000	1,494	.01	.897

증을 유의하게 예언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목적인 두 가지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네 개의 회귀 분석 중 일부에서만 관찰되었다.

#### 1) 사회지향성 차원

사회지향성 차원의 경우,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과 생활사건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취약성 가설 또는 일치성 가설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울 점수를 예언함에 있어 사회지향성과 부정적 대인관계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R^2$  증가치=0.001,  $F$ =.75,  $p$ =.384. 그러나 사회지향성

과 부정적 성취관련 사건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우울증을 유의한 수준에서 예언해 주었다,  $R^2$  증가치=0.019,  $F$ =13.38,  $p$ =.000. 이러한 결과는 높은 사회지향성이 대인관계 관련 사건과 같이 성격양식과 일치하는 특정 사건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Robins 등 (199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는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이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하지만 성취관련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울증의 취약성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약성 가설 또는 일치성 가설의 예

언과 상반되는 것이다.

## 2) 자율지향성 차원

자율지향성과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예언한 일치성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율지향성과 성취사건(일치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증 수준을 예언해 주었다,  $R^2$  증가치=0.008,  $F=5.33$ ,  $p < .05$ . 이와 함께 자율지향성 성격과 대인관계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불일치 사건) 간의 상호작용은 우울증 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했다,  $R^2$  증가치=0.000,  $F=.01$ ,  $p=.897$ .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 성격양식과 일치하는 성취 관련 생활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증가시키지만 자율성 성격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대인관계 관련 생활사건은 우울증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일치성 가설 또는 차원 특정적 취약성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 논 의

최근 들어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서의 성격양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이라는 성격 양식이 대인관계 및 성취관련 생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해서 우울증 정도를 예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지향성 성격양식의 경우는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과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즉 사회지향성 성격과 이와 일치하는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정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우울 수준을 예언함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게다가 예언과는 상반되게 사회지향성 성격은 성취관련 사건의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해서 우울 수준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obins 등 (1995)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연구에서 사회지향성과 부정적 성취 사건의 빈도가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상의 변화를 유의하게 예언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자율지향성 성격 양식과 사건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성격-사건 일치성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자율지향성은 이 성격차원과 일치하는 성취관련 사건의 스트레스 정도와 상호작용해서 우울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한 반면, 자율지향성 성격 차원과 일치하지 않은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우울 수준을 예언하지 못했다. 일치성 가설이 자율지향성 차원에서는 지지되었지만 사회지향성 차원에서는 지지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표집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은 학업이나 장래의 진로 등 주로 성취관련 사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경우, 성취관련 사건은 자율지향성 성격과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을 예언할 뿐 아니라 사회지향성 성격양식과도 상호작용효과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성취관련 사건의 빈도(평균=15.35)가 대인관계 관련 사건의 빈도(평균=7.9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성취관련 사건의 중요성=20.38, 대인관계 사건의 중요성=15.02)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이 예언과는 다르게 성취관련 사건의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을 유의하게 설명했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일치성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본 연구의 결과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Beck (1983)과 Blatt(1974) 등 우울 취약성 가설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을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거절에 쉽게 좌절감을 경험하는 등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학업 수행의 실패와 같은 부정적 성취사건들도 순수하게 성취사건 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인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부정적인 성취관련 사건을 '학업수행의 실패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학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존중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회지향성과 성취관련 사건간의 상호작용이 우울증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와 다른 측정도구로 성격양식과 생활경험을 평가하고 종단적으로 접근한 Robins 등 (1995)의 연구에서 사회지향성 성격과 성취관련 사건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사회지향성 성격 양식과 대인관계 사건간의 상호작용이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생활사건의 측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서도 소개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성취사건에 비해 대인관계 사건의 발생 빈도와 중요성을 더 낮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평가 기간이 2개월로 너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평가된 대인관계 사건들이 외상적인 경우가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평가기간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그 이전에 경험했던 외상적 대인관계 사건들 역시 우울에 전향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들의 해석과 일반화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임상 전집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두번째 제한점은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측정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최근 2개월간에 겪었던 사건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었다. 비교적 단기간으로 제한된 생활사건 스트레스 평가로는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효과를 효과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제한점은 본 연구의 설계가 횡단적이기 때문에 성격-사건의 상호작용과 우울간의 인과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이 분야의 추후 연구 방향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전집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인 및 우울장애 환자에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한 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성격 양식

이 우울 취약성으로 작용한다는 보다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표집과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요구된다.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 가설은 우울증의 발생과 유지 및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함(Beck, 1983)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성격과 생활사건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격 양식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몇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Blatt (1992)는 의존성 성격의 우울증 환자는 정신분석에 비해 지지적이고 표현적인 심리치료를 받았을 때 호전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Zettle, Haflich 및 Reynolds(1992)는 사회지향성이 높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집단 인지치료가, 그리고 자율지향성이 높은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개인 인지치료가 더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발생이나 유지과정 뿐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격 양식에 따라 치료기법간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이민규 (1999). 한국판 PSI-II (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미발표.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발표.
- Aiken, L., & West, S. (1993).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ery Park: Sage Publications.
- Beck, A.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ck, A.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J. Clayton & J.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New York: Raven Press.
- Beck, A.T., Rush, A.J., Epstein, N., Harrison, R.P.,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eck, A.T., Rush, A.J., Shaw, B.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mporad, J. R. (1971). New views on the psychodynamics of the depressive character. *World Biennial of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1, 219-244.
- Beutler, L. E., A.J., & Williams, R.E. (1995). Integrative, and eclectic therapy in practice. In B. Bonger & L. E. Beutler (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otherapy*(pp. 274-29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att, S.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spective depress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107-157.
- Blatt, S.J., & D'Affli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Clark, D.A., Beck, A.T., & Brown, G.K. (1992). Sociotropy, autonomy, and life event perceptions in dysphoric and nondysphoric individua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635-652.
- Hammen, C., Ellicott, A., & Gitlin, M. (1989).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and prediction of courses of disorder in unipolar depressed pati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 377-388.
- Hammen, C., Marks, T., Mayol, A., & deMayo, R. (1985). Depressive self-schema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08-319.
- Kutcher, G.S., & Blaney, P.H. (1994). *Styles of depressive vulnerability: A test of specificity*. Unpublished manuscript.
- Robins, C.J., & Block, P. (1988). Personal vulnerability,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specific interac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47-852.
- Robins, C.J., Hayes, A.M., Block, P., Kramer, R.J., & Villena, M (1995). Interpersonal and achievement concerns and the depressive vulnerability and symptom specificity hypotheses: A prospective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1-20.
- Robins, C.J., Ladd, J.S., Welkowitz, J., Blaney, P.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300.
- Sarason, I.G., Johnson, J.H., & Siegal, J.M.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46.
- Segal, Z. V., Shaw, B.F., Vella, D.D., & Katz, R. (1992). Cognitive and life stress predictors of relapse in remitted unipolar depressed patients :Test of congruency hypothes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26-36.
- Zettle, R.D., Haflich, J.L. & Reynolds, R.A. (1992). Responsivity to cognitive therapy as a function of treatment format and client personality dimens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787-797.
- Zuroff, D.C., & Mongrain, M. (1987).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ve affective st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4-22.

원고접수일 1999. 11. 1  
수정원고접수일 2000. 1. 20  
게재결정일 2000. 2. 7 ■

## **The Personality-event Congruency Hypotheses for Depression**

**Min-Kyu Lee**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ersonality-event congruency hypotheses for depression. According to the hypotheses, the sociotropy and autonomy serve as vulnerability factors to dysphoria in the presence of life stress that matches the theme of the vulnerability. Four hundred ninety nine college students responded to the Korean version of PSI-II, Life Event Questionnaire, and HDS. The results of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artially supported the congruency hypotheses. That is, strong support for the predicted interaction was obtained in autonomy dimension. But sociotropy vulnerability yielded no significant interactions with the stress of interpersonal events.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limitations, clinic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